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November 2025 Issue | Vol. 79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 싱가포르 따라잡으려면 70년 걸릴 수도
— page 1-2
- PBBM, 신입 국제청장 임명
— page 3
- 3분기 승인된 투자 약속 49% 급감
— page 3-4
- 마르코스, 빠른 경제 회복에 기대
— page 4
- SEIPI, 경쟁력 상실한 산업 지원
위해 정부에 도움 요청
— page 5-6
- 아시아 증시, 외국인 자금 100억 달러
이상 유출 — page 6

UPCOMING EVENT

- [Nov 24, 2025] 2025년 KCCP 크리스마스 파티
— page 7
- [Nov 27, 2025] 제20회 JFC 네트워킹 나이트
— page 7

필리핀, 싱가포르 따라잡으려면 70년 걸릴 수도

November 10, 2025 | Bless Aubrey Ogerio | BusinessMirror

필리핀 경제가 동남아시아 이웃 국가들보다 더 뒤쳐질 위험에 처해 있으며, 베트남을 따라잡는 데는 2년, 싱가포르를 따라잡는 데는 최대 70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한 경제전문가가 말했다.

“(만약) 공공 지출 관련 의혹이 계속되어 경제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개혁에서 관심과 자원이 분산된다면, 필리핀은 뒤쳐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라고 필리핀은행(BPI) 수석 이코노미스트 에밀리오 S. 네리 주니어는 수요일에 발표한 논평에서 밝혔다.

3분기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은 4% 성장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가계와 공공 인프라 지출이 둔화되고 홍수 통제 관련 스캔들이 투자자 및 소비자 심리를 약화시키면서 4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1~9월 평균 GDP 성장률은 5%로, 정부의 연간 성장 목표치인 5.5~6.5% 달성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필리핀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 격차를 좁히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네리 씨는 말했다.

그는 필리핀의 1인당 GDP가 역내 다른 경제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하며, 2024년 필리핀의 1인당 GDP는 4,078달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면, 필리핀이 베트남의 1인당 GDP 수준을 따라잡는 데는 2년, 인도네시아는 4년, 태국은 14년, 말레이시아는 26년, 싱가포르는 70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소득이 정체된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실제로는 이들

국가의 1인당 GDP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격차는 유지되거나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네리 씨는 말했다.

2024년 기준 필리핀은 1인당 GDP 9만 674달러의 싱가포르에 크게 뒤쳐졌으며, 그 뒤로는 한국(3만 6,128달러), 일본(3만 2,498달러), 중국(1만 3,312달러), 말레이시아(1만 2,540달러), 태국(7,491달러), 인도네시아(4,958달러), 베트남(4,535달러) 순이었다.

“팬데믹 이전에는 필리핀이 베트남보다 1인당 GDP가 높았지만, 이후 추월당했습니다. 현재 추세를 기준으로 하면 필리핀이 베트남을 따라잡는 데 2년이 걸리겠지만, 이 격차는 2044년까지 13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네리 씨는 말했다.

BPI 이코노미스트는 필리핀이 이웃 국가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장을 가속화할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6% 이상 성장하지 못한 점이 보여주듯, 현재의 경제 모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네리 씨는 필리핀 경제가 해외 필리핀 노동자(OFW) 송금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산업에 기반한 소비 지출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성장 동력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농업과 제조업 등 생산 부문을 강화해야 경제가 더 자립적이 되고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은 베트남의 성장에 핵심적이었으며, 필리핀에도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Cont. page 2]



High-rise buildings dominate the skyline of Makati City's central business district. -- The Philippine Star/ Ryan Baldemor

필리핀, 싱가포르 따라잡으려면 70년 걸릴 수도

[Cont. from page 1]

그러나 네리 씨는 정부가 집중력을 잃는다면 이러한 개혁을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지출 문제가 재정 자원과 정책 결정의 초점을 장기적 개발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정부 지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네리 씨는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필리핀이 통화정책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026년 중반까지 금리 인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나친 금리 인하는 성장 부진을 보상하기 위해 통화정책이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오버슈트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향후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쌀 가격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2026년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큼니다. 만약 BSP가 금리를 너무 많이 인하했다가 갑자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중앙은행은 이상적인 속도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라고 네리 씨는 덧붙였다.

10월에 BSP는 인플레이션 안정세와 홍수 통제 혼란 속의 부정적 기업 심리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 3년 만의 최저치인 4.75%로 내렸다. BSP는 2024년 8월 완화 사이클을 시작한 이후 누적 175bp의 금리를 인하했다.

BSP의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 총재는 올해 마지막 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12월 11일과 내년 초에 추가로 25bp씩 두 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 비둘기파적?

한편, 노무라 글로벌 마켓 리서치는 홍수 통제 스캔들로 인한 재정 긴축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면서, BSP(필리핀 중앙은행)가 예상보다 더 많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노무라는 최신 월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부패 스캔들의 상당한 영향이 BSP로 하여금 내년까지 50bp 이상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부패 논란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재정 긴축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단기 성장 전망을 크게 훼손하고 BSP가 더 오랜 기간 비둘기파적 스탠스를 유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노무라의 애널리스트 유벤 파라쿠엘레스와 이루 첸은 분석했다.

이들은 글로벌 성장의 급격한 둔화와 부패 스캔들의 해결 지연이 성장에 대한 하방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소스 파트너스의 국가 애널리스트 디와 C. 기니군도는 최근 성장 수치와 안정된 인플레이션이 통화당국의 비둘기파적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9월과 10월 모두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1.7%로 안정된 가운데 명확한 성장 둔화가 나타난 것은 BSP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를 강화합니다.”라고 기니군도 씨는 11월 11일자 메모에서 밝혔다.

10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동일한 1.7%였으며, 전년 동월의 2.3%보다 낮았다. 이로써 1~10월 평균 인플레이션은 1.7%를 기록하여 BSP의 연간 전망치와 일치했다.

“연말 성수기 지출과 송금 증가에 따른 수요가 물가를 조금 끌어올릴 수 있지만, 통화정책 여력이 이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어 추가 금리 인하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기니군도 씨는 말했다.

그러나 노무라는 새로운 위험 요인이 등장하면서 BSP가 현재 시사한 수준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BSP는 더 비둘기파적 스탠스를 보였으며, 부패 스캔들 이후 국내 수요를 지원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더 완화적인 정책 여지가 있다고 신호했습니다.”라고 파라쿠엘레스 씨와 첸 씨는 말했다.

한편 기니군도 씨는 정치적 불안정 심화, 약세를 보이는 주식시장과 폐소화, 감소하는 외국인 투자 등이 BSP의 정책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기상조이거나 과도한 통화정책 완화는 자본 유출을 촉발하고 환율을 더욱 약세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책금리의 신중한 동결은 중요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 BSP가 여전히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며 경계심을 유지하고 위험을 고려하고 있으며, 성장 지원과 거시경제 신뢰·시장 신뢰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 KKC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11/13/711937/philippines-may-take-70-years-to-catch-up-with-singapore/>

PBBM, 신임 국세청장 임명

November 10, 2025 | Samuel P. Medenilla | BusinessMirror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 재무부 차관인 찰리토 마틴 R. 멘도사를 국세청(BIR) 신임 청장으로 임명했다.

대통령 대변인직 대행인 데이브 M. 고메즈는 지난 수요일 언론에 이 사실을 확인했다.

멘도사는 재무부(DOF) 수익 창출 부서 중 하나인 BIR의 수장인 로메오 D. 라마구이를 대신하게 된다.

그는 현재 재무부의 세수 운영 그룹(Revenue Operations Group, ROG) 차관으로, 세금 면제 요청을 관리하고 세금 판결 및 세수·관세 규정을 검토하여 발행을 담당하고 있다.

ROG는 국세청(BIR)과 관세청(Bureau of Customs)을 감독한다.

말라카냥궁은 취재 시점까지 라마구이가 교체된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국세청(BIR) 수장 교체는 올해 목표 세수 3조 2,190억 페소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발표된 직후 이루어졌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11/12/pbbm-names-new-bir-chief/>

3분기 승인된 투자 약속 49% 급감

November 14, 2025 |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패 스캔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승인된 외국인 투자 약속이 3분기에 거의 50% 급감했다고 현지 통계청이 밝혔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예비 자료에 따르면, 투자 진흥 기관(IPAs)이 승인한 외국인 투자 약속 규모는 7~9월 기간 동안 737억 6천만 페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37억 4천만 페소에서 48.7%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2024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투자 약속 금액이었다.

아테네오 경제연구개발센터(Ateneo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세르 페르시발 K. 페냐-레이스 소장은 승인된 투자 감소가 투자 심리 약화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Tingin ko. Wala pang nakukulong eh (제 생각에는 아직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라고 Viber 메시지에서 말했다. 이는 3분기 승인된 투자 약속의 급락이 4분기부터 2026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분기별로 보면, 승인된 투자 약속은 2분기 673억 8천만 페소에서 3분기에는 9.34% 증가한 736억 8천만 페소를 기록했다.

3분기 외국인 투자 약속의 주요 출처는 싱가포르로 202억 6천만 페소(27.5%)였으며, 이어 일본 135억 9천만 페소(18.4%), 케이맨 제도 131억 4천만 페소(17.8%) 순이었다.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약속은 55억 7천만 페소(7.6%), 중국은 45억 1천만 페소(6.1%)였다.

PSA 자료에 따르면, 이번 투자 약속은 바탄 자유항구청(Authority of the Freeport Area of Bataan), 기지 전환 개발청(BCDA),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s, BoI), 클락 개발공사(Clark Development Corp.), 클락 국제공항(Clark International Airport Corp.),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 수빅만권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등 7개 투자 진흥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다.

그중 PEZA가 승인한 외국인 투자 약속은 472억 9천만 페소로, 3분기 총액의 64.2%를 차지하며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BoI는 202억 2천만 페소(27.4%)를 승인했고, BCDA는 51억 페소(6.9%)를 승인했다.

7~9월 기간 동안, 방사모로 투자위원회(Bangsamoro Board of Investments), 카가얀 경제구역청(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존 헤이 매니지먼트(Jon Hay Management Corp.), 포로 포인트 매니지먼트(Poro Point Management Corp.), 관광 인프라·기업구역청(Tourism Infrastructure and Enterprise Zone Authority), 잠보앙가시 특별경제구역청(Zamboanga City Special Economic Zone Authority)은 어떠한 투자 약속도 승인하지 않았다. [Cont. page 4]



US one-dollar banknotes are seen in this illustration taken on Feb. 8, 2021. -- REUTERS/Dado Ruvic/Illustration/File Photo

3분기 승인된 투자 약속 49% 급감

[Cont. form page 3]

또한 PSA는 승인된 외국인 투자 약속의 약 49%인 361억 2천만 페소가 제조업에 투자될 예정이며, 24.4%인 179억 8천만 페소는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 부문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부문은 118억 6천만 페소로 전체 약속액의 약 16.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칼라바르손(Calabarzon)이 282억 3천만 페소(38.3%)로 가장 많은 투자 약속을 받았으며, 중부 루손(Central Luzon)이 164억 2천만 페소(22.3%), 비콜(Bicol) 지역이 130억 3천만 페소(17.7%)를 차지했다.

한편 PSA는 외국인과 필리핀 국적자의 3분기 투자 약속이 전년 5,383억 6천만 페소에서 36.1% 감소한 3,437억 7천만 페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액 중 필리핀 국적자의 투자 약속은 2,701억 페소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다.

이로써 승인된 총 투자액은 3,437억 7천만 페소로, 전년 대비 36.1% 감소했다.

이 투자가 실제로 실행될 경우, 약 27,605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PSA가 집계한 외국인 투자 약속 자료는 가까운 시일 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수치로,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이 지급 균형(balance of payments) 추적을 위해 관리하는 실제 외국인 직접투자(FDI)와는 다르다. 중앙은행의 모니터링은 프로젝트를 넘어 재투자 수익과 필리핀 지사에 대한 채권 대출 등도 포함한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11/14/712208/approved-investment-pledges-plunge-49-in-q3/>

마르코스, 빠른 경제 회복에 기대

November 14, 2025 | Bella Cariaso - The Philippine Star



“The reason that we had that is that there really was a downturn in economic activity. You have to remember it’s not only because of these (anomalous flood control projects), the storm, the working days lost in our economy because of climate change,” Marcos said at a press conference.

STAR / File

마닐라, 필리핀 — 마르코스 대통령은 어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홍수 통제 관련 논란이 소비자와 투자자 신뢰에 부담을 준 영향이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과가 나온 이유는 경제 활동이 실제로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홍수 통제 사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폭풍,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 활동일 손실 등도 원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수요일 필리핀 페소는 경제 성장 둔화와 정부 운영 문제에 대한 시장 우려 속에 달러 대비 59.17로 새로운 최저치를 기록하며 하락 마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세계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부과된 새로운 무역 구조로 인한 충격을 겪는 유일한 국가가 아닙니다”라고 덧붙였다.

국가통계청(DEN) 데니스 마파 통계청장은 3분기 필리핀 GDP가 4% 성장했으며, 이는 이전 분기 5.5% 성장과 지난해 3분기 5.2% 성장보다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번 성장률은 또한 2021년 1분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기록된 3.8% GDP 감소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기도 하다.

이번 성장률을 반영하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성장률은 5%로, 정부의 연간 성장 목표인 5.5~6.5%를 밑돌았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모두가 이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공공 지출 수준이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공공 지출을 늘릴 예정이므로, 3분기에 손실된 부분을 회복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11/14/2487036/marcos-bets-speedy-economic-recovery>

SEIPI, 경쟁력 상실한 산업 지원 위해 정부에 도움 요청

November 14,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필리핀 반도체·전자산업재단(SEIPI)은 동남아 이웃 국가들과의 새로운 미국 무역 협정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산업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SEIPI 회장 다닐로 C. 라치카(Danilo C. Lachica)는 미국이 다른 전자제품 수출국에 적용하던 상호 관세율을 낮추면서 필리핀이 경쟁 우위를 잃었다고 밝혔다.

그는 목요일 PASIAWORLD 2025 연례 공급망 컨퍼런스에서 BusinessWorld와의 인터뷰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전기 요금, 물류 비용, 수도 요금, 그리고 정부의 적극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강점은 상호 관세였다. 하지만 이제 관세 측면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8월, 미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19%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베트남에는 20%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과 아세안(ASEAN) 회원국 간 최종 협정이 필리핀의 경쟁력에 추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묻자, 라치카 회장은 필리핀에 대한 새로운 관세율이 발표될 때까지는 “평소처럼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SEIPI 회원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이것이 우리의 상호 관세다. 만약 미국 대법원이 그 합법성을 문제 삼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면 그때 대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분석만 하다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정상적인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반도체와 일부 전자 제조 서비스 제품은 상호 관세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는 “현재 0% 관세 상태가 안전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만 안심하고 기다리진 않을 것이다. 이미 말했듯이, 워싱턴 DC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1분기나 2분기쯤에는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필리핀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라치카 회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 상황 속에서 필리핀이 수출 시장을 새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한다… 아세안이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상관없다. 특히 유럽에서는 필리핀의 역량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흥미로운 점은 파나마와 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문의하고 있고, 캐나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치카 회장은 필리핀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자체 웨이퍼 생산 시설을 이미 갖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동티모르나 라오스와 경쟁하게 될 것이고, 더 발전한 이웃 국가들은 반도체와 전자산업을 계속 성장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이 분야가 직면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무역 수치는 반도체와 전자제품 수출이 소폭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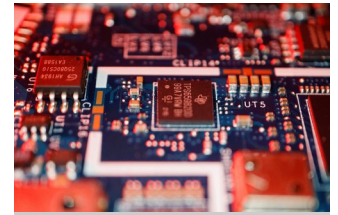
그는 “성장이 정체되는 것을 넘어설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그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첨단 기술”이라고 말했다.

올해 첫 9개월 동안 필리핀은 335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전자제품을 수출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306억 달러보다 9.5% 증가한 수치다.

한편, 라치카 회장은 부패 스캔들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다시피, 다국적 기업들은 이런 문제를 용납하지 않는다.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임원을 해고한다”고 그는 말했다.

특히 라치카 회장은 일부 기업들이 현지 파트너로부터 부패의 영향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Cont. page 6]



Semiconductor chips are seen on a circuit board of a computer in this illustration picture taken on Feb. 25, 2022. — REUTERS/FLORENCE LO/ILLUSTRATION

SEIPI, 경쟁력 상실한 산업 지원 위해 정부에 도움 요청

[Cont. form page 5]

그는 “관심은 있다. 지속적일까? 바라건대 그렇다. 의미 있는 수준일까? 바라건대 그렇다. 하지만 여전히 큰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라치카 회장은 기업들이 정부 프로젝트에서의 부패 및 비리 의혹에 대한 독립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for Infrastructure, ICI)의 조사 결과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ICI 조사가 몇 달째 진행되고 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신뢰성과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 빨리 처벌이 나오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11/14/712121/seipi-urges-govt-to-help-sector-as-it-loses-competitiveness/>

아시아 증시, 외국인 자금 100억 달러 이상 유출

November 14, 2025 | By Reuters | The Manila Times

The Manila Times * 아시아 증시는 11월 첫째 주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유출을 경험했다. 투자자들이 높은 기술주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계심과 장기적인 시장 랠리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LSEG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로 끝난 주간 동안 대만, 한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 101억 8천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도했으며, 이는 10월 순매수 22억 8천만 달러에서 반전된 수치다.

한국 주식은 지난주 약 50억 5천만 달러 순유출을 기록하며, 전월 42억 1천만 달러 순유입에서 반전되었다.

대만 주식 역시 지난주 38억 6천만 달러 순매도를 기록하며, 10월의 32억 1천만 달러 순유출을 넘어섰다.

BNP파리바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식 및 파생상품 전략 책임자인 제이슨 루이(Jason Lui)는 “한국과 대만 주식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출은 주로 주요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약세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이는 일본과 미국 등 다른 시장의 글로벌 역풍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MSCI 아시아(일본 제외) 정보기술 섹터 지수는 지난주 4.23% 하락했으며, 이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 62.5% 상승한 이후의 조정이다.

MSCI 글로벌 정보기술 섹터 지수도 지난주 4.38% 하락했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인 마크 헤펠레(Mark Haefele)는 “높은 기술주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변동성을 촉발했지만, 견고한 펀더멘털은 현재 수준이 정당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글로벌 기술주 수익은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12.5%의 견고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LSEG 자료에 따르면, MSCI 아시아태평양(일본 제외) 지수의 12개월 선행 PER은 10월 말 기준 15.81로, 2021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편, 인도 주식은 지난주 14억 2천만 달러 순유출을 기록하며, 10월 16억 6천만 달러 순유입에서 반전됐다. HSBC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도는 GEM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언더웨이트 국가이며, 우리가 추적하는 펀드의 4분의 1만이 인도를 벤치마크 대비 오버웨이트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도는 AI 해지에 적합하며, AI 랠리에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에게 분산 효과를 제공한다. 신흥시장으로 추가 자금이 유입될 경우, 인도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베트남과 태국 주식은 각각 9,500만 달러, 4,000만 달러 외국인 자금 유출을 기록했으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각각 2억 700만 달러, 7,70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5/11/14/business/top-business/asian-equities-see-over-10b-in-foreign-outflows/2223457>

UPCOMING EVENT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Christmas Party

NOVEMBER 24, 2025 AT 5:30PM
AYALA BALLROOM, MAKATI SPORTS CLUB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Ms. Chi or Ms. Sang at +632-88857342 or at info@kccp.ph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KCCP)는 오는 2025년 11월 24일 마카티 스포츠 클럽(Makati Sports Club)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함께할 스폰서(테이블 스폰서 또는 경품 스폰서)를 초대합니다.

이번 즐거운 행사는 한국과 필리핀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 시즌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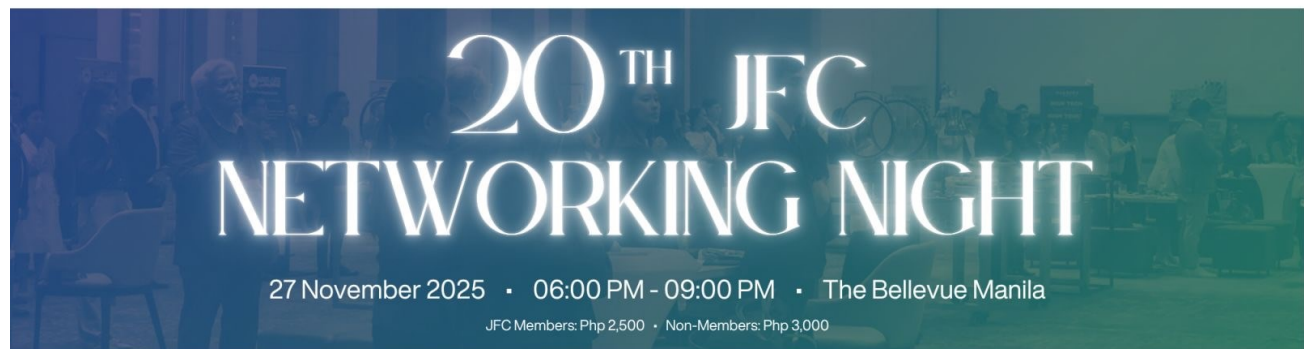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Ms. Chi / Ms. Sang
 전화: +632-8885-7342
 휴대폰: 09178015920 | 09158887296 (Viber 및 KakaoTalk 모두 가능)
 이메일: info@kccp.ph

THE JOINT FOREIGN
CHAMBERS OF COMMERCE
AMCHAM • CANCHAM • ECCP • JCCPI
• KCCP • PAMURI



ORGANISED BY

20TH JFC NETWORKING NIGHT

27 November 2025 • 06:00 PM - 09:00 PM • The Bellevue Mani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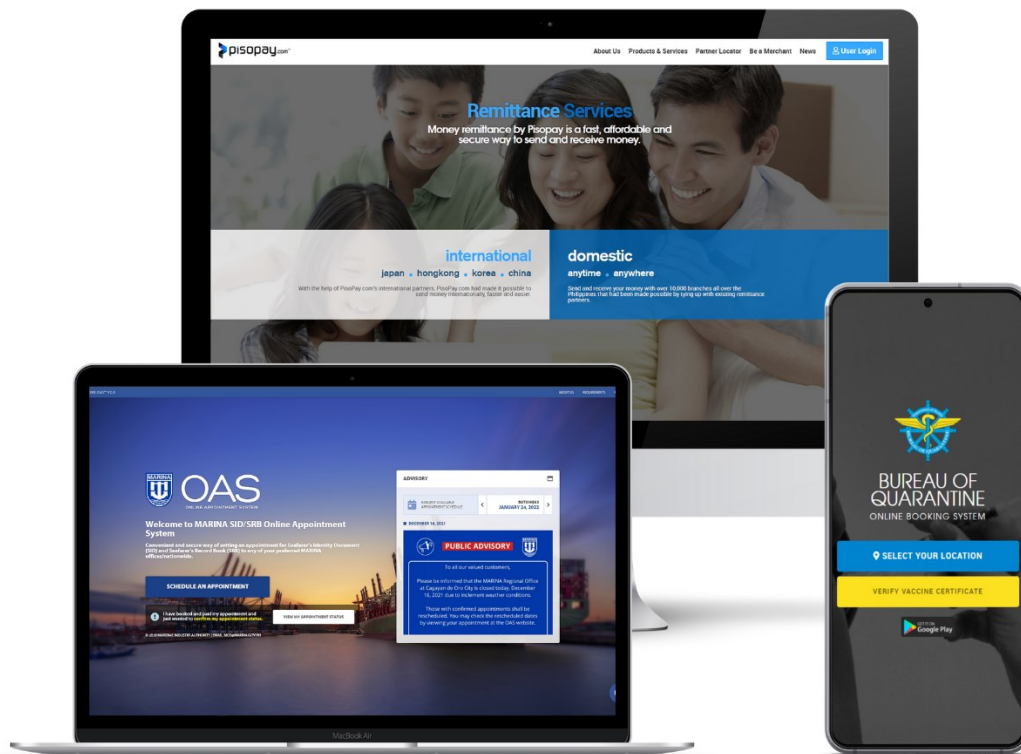
JFC Members: Php 2,500 • Non-Members: Php 3,000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Elevating the definition of Fintech Standards



CONTACT US

- (02) 8242 8153
- info@pisopay.com.ph
- <https://www.pisopay.com.ph>
- Pisopay Bldg, 47D Polaris, Makati, 1209 Metro Manila

